



"김매는 데 주인은 아흔아홉 뭇을 맨다"

뜻: 여러 사람에게 일을 시켜도, 결국 그 일을 가장 걱정하고 애쓰는 사람은 주인이라는 뜻이야.

이 속담과 관련있는 말 책임 · 주인 의식 · 노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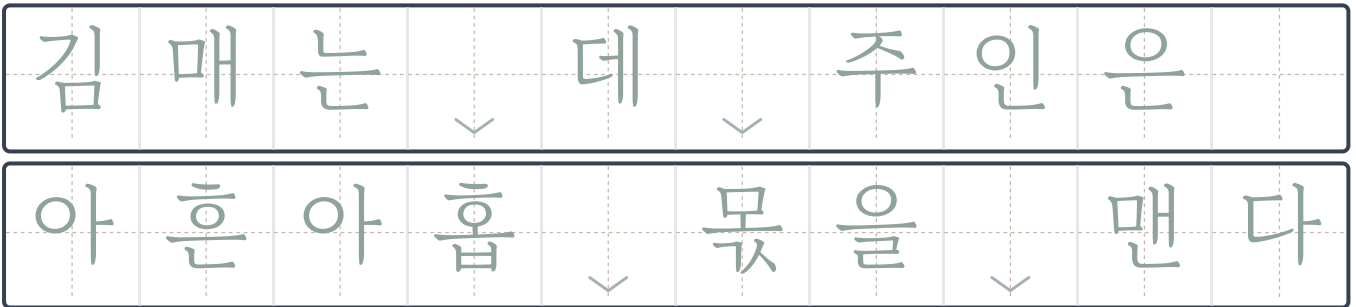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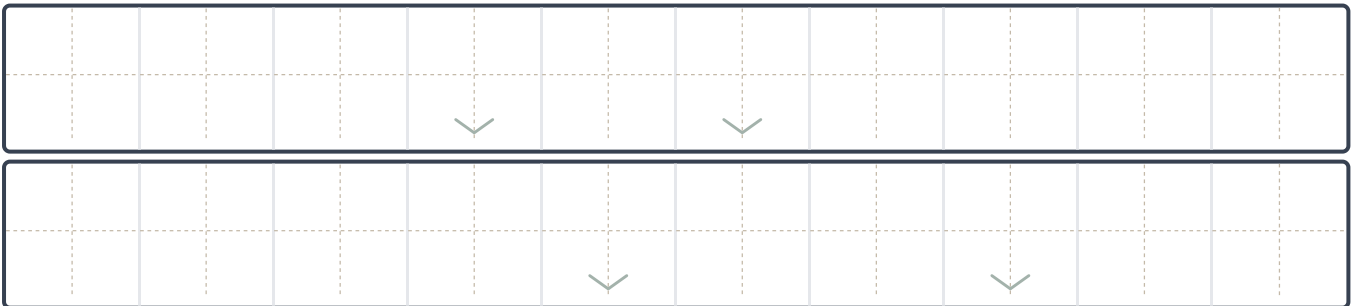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

2단계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ㄱ ㅁ ㄴ] [ㄷ] [ㅈ ㅊ ㅋ] [ㅇ ㅎ ㅇ ㅎ] [ㅁ ㅇ] [ㅁ ㄷ]

웹에서 보기

